

지역 매 아 리

김제시, 심야 잠복근무 끝에 하천에 불법투기 업체 적발

김제시 환경과는 지난 28일 하천에 폐기물 6톤을 무단으로 버리려 한 김제시 폐기물 처리업체를 심야 잠복근무 중 현장에서 적발하였다.

해당업체는 지난 20일 김제시 만경읍 인근 하천 주변에 폐기물 6톤 상당을 버린 혐의 또한 시인하였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와 B씨는 관내 폐기물 종합 재활용 S업체 지시를 받고 사업장 침출수를 화물차에 실은 뒤 인적이 뜸한 하천 주변 배수로에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김제시 환경과 소속 공무원의 끈질긴 야간 잠복수사 끝에 현장에서 불발했다. 최근 2차례 배수로에 폐수를 무단 투기한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농가·업체 지도점검 및 방범용 CCTV 확인 등을 통해 용의처리를 조사하고 야간 잠복근무를 실시한 것이다.

김제시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임사회 개최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29일 본회의장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국·소·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임사회를 개최하고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회 첫날인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의사일정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열려 이틀간 조례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내달 2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과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422억 원보다 974억 원 증액된 9,396억 원이다. 주요사업에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33억 원, 전통시장 복합창년촌 조성 13억 원, 말도피아 체합관 조성사업 20억 원 등이 편성됐다. 한편 운주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이 전체 재원의 29%에 달한 점과 1회 추경보다 더 많은 재원이 계상된 이번 제2회 추경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잘못된 예산 추계와 편성에 따른 피해는 모두 김제시민의 몫"이라며,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축제 경쟁력 인정”

김제시, '2019 빅데이터 축제 대상' 서 지평선축제 '명품브랜드 대상' 수상

대한민국 글로벌축제 김제지평선축제가 29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에서 작년 '기업상생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대상은 매일경제가 고려대 빅데이터 융합사업단, KT, BC카드,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와 함께 KT빅데이터를 기초자료로 분석한 뒤 정성 평가를 곁들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축제 20곳을 선정한 결과다.

지평선축제는 주말 평균방문객이 많이 방문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빅데이터 우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또한 가장 한국적인 전통 농경문화를 세계인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지평선'의 브랜드가치를 고양시키는 등 대한민국 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글로벌축제로서 의 명성을 어김없이 발휘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빅데이터 분석

을 기반으로 시도된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에서 명품브랜드 대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객관적인 축제 평가에서 지평선 축제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평선축제 역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수용 공간 및 먹거리를 확충하여 글로벌축제 품격에 맞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글로벌축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주 행사장인 벽골제에서 오감을 만족하는 110여가지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더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공약 이행평가단 분과별 회의'를 개최했다

공약이행평가단 분과회의 개최

김제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공약 이행평가단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5개 분과별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민선7기 공약 84개 사업 104개 세부사업의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해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약이행 중에 사업명 및 이행지표의 변경·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총 16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약이행률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분과회의를 통해서 일부 추진 과정상 문제점이 드러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거쳐 추진 내용의 변경 등을 통해 당초 공약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앞서 내 공약 100% 달성을 위해 제도적,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박성일 군수가 지난 28일 완주군청에서 '여성 경제인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기업인 애로사항 해결 적극 노력”

완주군-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간담회 개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모색

박성일 완주군수가 여성경제인들과 만남을 갖고, 완주군의 경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완주군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와 박성일 군수가 지난 28일 완주군청에서 '여성 경제인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김지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여성기업인 20여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여성경제인의 기업 활동에 저해되는 현장의 이야

기를 듣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완주군 관내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 지원을 위해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서는 "도내 여성 경제인이 5만 3359명으로 기업인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한 축이 돼왔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완주군에서 많은 도움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일 군수는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경영활동 및 권익 신장,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여성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인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1999년 창립해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학교주변 기호식품 안전강화

완주군이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강화에 나섰다.

완주군은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업소 4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군청 먹거리정책과 위생안전팀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판매, 보존 및 보관기준 및 병장·냉동시설 온도기준 준수,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하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등 전단지 배부해 학교주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지도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압류·수거해 폐기 조치하는 한편,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민·관 합동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완주군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활동을 펼쳤다. 완주군은 29일 완주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봉동읍 봉동사거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봉동사거리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완주고등학교 앞에서는 불법 주정차 홍보물을 나눠 주는 등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전의식개선을 꾀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 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1



일부러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기도 했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